

대학생들의 주관적 규범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와 안정지향성의 조절효과

권인수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김기흥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서문교 (웅지세무대학교 회계세무정보학부)***

국 문 요 약

많은 대학생들이 변화하는 시대의 적응을 어려워하고 진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창업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런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 대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주관적 규범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살펴보면, 자기 효능감의 매개효과와 안정 지향성의 조절 정도를 살펴보았다.

연구 가설 검증을 위해 서울 소재 대학의 대학생 201명에게 관련 변수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선행 이론에 근거해서 가설 및 설문 문항들을 만들었으며, 각 변수의 타당도와 신뢰도 및 상관관계 분석도 실시하였다.

가설 분석에는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했으며, 그 결과 주관적 규범은 창업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자기 효능감은 주관적 규범과 창업 의도의 관계를 간접 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주관적 규범이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칠 때 안정 지향성은 부(-)의 조절효과를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가 주는 시사점은 창업에 대한 의도를 높이는데 있어서는 준거인들의 창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긍정적 인식은 창업의 자신감과 도전의식에 영향을 미쳐 창업의도에 영향을 주게 된다. 하지만 경력지향성 성향이 조직의 안정적 고용을 선호하는 경우에는 창업 의도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핵심주제어: 창업의도, 주관적 규범, 안정지향성, 자기효능감

1. 서론

2017년 맥킨지 보고서에 의하면 4차 산업혁명에 의한 기술 발전으로 인해 2030년까지 적게는 4억 명에서 많게는 8억 명까지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측했다(Manyika et al., 2017).

급속도로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해외 주요국가에서는 신기술 적용과 함께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는 인재양성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의 국립학술원은 대학의 데이터 과학 교육을 중요시하는 교육과정을 개발해 대학 교육에서 데이터 과학 전공 및 부전공 프로그램을 개설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중국은 인공 지능 과학기술 혁신 및 인재양성을 위해 2020년까지 대학 과학기술 혁신 단과대 시스템을 완성시키고 2025년까지 인공지능 과학기술 인재양성의 성과 도출을 위한 행동계획을 교육부에서 마련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지식정보, 과학기술 분야가 급변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대학 교육은 발전 속도에 못 미치며, 효용

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다보니 많은 대학생들이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기 어려워하고 있으며, 올바른 진로 탐색도 힘들어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대학 진학 시 진로와 직업에 대한 고민이 적은 상태에서 입학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졸업 이후 진로와 관련해서 많은 갈등을 겪고 있으며, 진로에 대한 정체성이 불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다(김민정·김봉환, 2007).

이렇듯 진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많은 대학생들이 창업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국내의 연구에 의하면 대학생의 63.3%가 창업에 대한 의향이 있고, 이 중에서 4.9%는 실제 창업을 준비 중으로 과거의 조사 결과보다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윤지영·이은정, 2013).

창업의 경우 개인의 기본적인 창업에 대한 의지와 지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본 연구는 창업에 대한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을 통해 창업의도를 불러일으킬 만한 정확한 원인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학

* 주저자,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kwonis@sejong.ac.kr

** 공동저자,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겸임교수, sihrm_kim@naver.com

*** 교신저자, 웅지세무대학교 회계세무정보학부 부교수, zard@wat.ac.kr

· 투고일: 2019-05-07 · 수정일: 2019-07-16 · 게재확정일: 2019-08-15

에서 진로 선택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두 교육할 것이 아니라, 창업에 대한 기대감과 중요도를 높게 생각하는 학생들에게 맞춘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창업에 대한 목표를 좀 더 손쉽게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여기에 자기효능감(self efficacy)의 매개효과와 안정지향성(security competence)의 조절 효과를 살펴보려 한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의 경우 목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자신의 동기와 인지적 자원을 활용하게 된다(Stajkovic & Luthans, 1998). 결국 창업에 대한 주관적 규범이 창업의도에 영향을 주게 된다면 창업의도에 앞서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의도적으로 변화시켜 더 적극적인 행동이 나타날 수 있으며(Speier & Frese, 1997), 창업의도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자신의 행동을 조직화하면서 실행하려고 노력할 수 있기 때문이다(Schunk, 1982). 다음으로 현재의 조직에서 떠나지 않고 장기적으로 조직에 남아 있기를 원하는 안정 지향성은 경력의 닻(career anchor) 변수 중 하나이다(Schein, 1978). 안정 지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조직이 요구하는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여 안정된 직장 생활을 추구하기 때문에(Kolvereid, 1996), 조직의 가치 및 규범에 순응하는 모습을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안정 지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창업과 같이 위험과 불확실성이 강한 창업에 대한 의도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주관적 규범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살펴보면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와 안정 지향성의 조절 정도를 살펴보려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학 창업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

대학에서 진로 선택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관적 규범과 같은 주변 환경의 요구와 자기효능감과 같은 개인적 특성을 고려한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학생들은 창업 진로에 대한 목표를 좀 더 손쉽게 달성할 수 있다. 그리고 학생들이 자신의 경력 지향 성향과 자기효능감을 파악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교육과 학습을 통해 해당 부분을 증가시켜 진로 목표 달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II. 이론적 배경

2.1 주관적 규범과 창업의도

주관적 규범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가족과 친구들과 같은 준거인들(referents)의 의견을 지각하고 수용해 순응하려는 동기이다(Fishbein, 1963). 일반적으로 주관적 규범은 크게 두 가지 형태의 요인으로 결정된다. 해당 요인은 준거인들이 자신의 행동을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않는가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나타내는 규범적 신념(normative beliefs)과 준거인들의 조언을 받아들일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순응동기(motivation to comply)로, 두 요인 모두 개인의 행동에 있어 준거인들을 의식하는 것을 의미한다(Fishbein & Ajzen, 1975).

즉, 개인이 특정 행동에 관여할지를 예측할 때는, 준거인들이 기대하는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는지와 기대에 얼마나 적합한 행동을 나타낼지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Trost et al., 1989). 또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존재하고 있는 인간은 행동에 있어 사회적 규범에 영향을 받게 된다. 주관적 규범은 이러한 사회적 규범을 의미하며, 자신의 행동의 수행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개인이 느끼는 사회적 압력이다(손영곤·이병관, 2010). 한편, 창업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 개인이 기업가가 되는 것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판단의 정도로 창업의도 형성에 있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개념이다(Segal et al., 2005).

Shapero & Sokol(1982)은 기업가 이벤트(entrepreneurial event) 모델에서 개인의 창업의지 및 창업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창업에 대한 인지된 열망(perceived desirability), 인지된 창업에 대한 실현가능성(perceived feasibility), 창업 관련 행동 성향(propensity to act)을 제시하였고, 세 가지 요인으로 인해 창업의도가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즉, 창업이라는 기업가적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결정 요인에는 인지와 관련된 요인들이 창업의도를 증가시킨다고 할 수 있다. 또한 Ajzen(1991)은 TPB(theory of planned behavior) 모델을 통해 시간의 압박, 과업의 난이도, 타인의 영향, 사회적 압력과 같은 인지된 변수들이 행동의도에 영향을 주는 선행변수라 주장했다.

Linan & Chen(2009)은 TPB의 확정모델을 제시하면서 창업에 대한 세 가지 동기 변수로 창업태도(personal attitude), 지각된 행동통제(perceived behavior control),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을 제시하였다. 각 변수의 상대적 중요성은 다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이 중에서 인지된 주관적 규범의 경우 창업태도에 영향을 미쳐 행동으로 전환시키는 중요 변수이다. 특히 학생의 경우 직업 선택을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준거인들의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창업 경험이 있어 자녀들이 창업 활동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는 경우 창업의도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보였다(Peterman & Kennedy, 2003).

결국 주관적 규범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며,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이를 밝혀냈다. 선행연구들 중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표적인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학생들에 대한 창업과 관련된 교육 지원, 가족 및 친구의 지원 등이 창업 의도 및 실제 창업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ucker & Selcuk, 2009). 정대용 외(2018)의 국내 연구에서도 주관적 규범은 창업 태도 및 지각된 행동통제의 매개를 통해 창업의도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창업 의도는 주변 사람들의 긍정적 인식이 형성되는 경우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성창수·김진수, 2011)

이러한 이론적 내용의 관계와 선행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했다.

가설 1: 주관적 규범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노력으로 원하는 결과를 성취할 수 있다는 신념과 기대이며, 본인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다(Bandura, 1977).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전략 중 언어적 설득(verbal persuasion)은 성취경험이나 대리경험 보다는 영향력이 떨어지지만, 결과 달성을 포기하려는 개인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도록 설득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Fitzsimmons et al., 1991). 특히 중요한 타인(significant others)과 권위자로부터 행해지는 언어적 설득은 자기효능감의 향상에 있어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보인다(Bandura, 1991). 이와 같이 창업에 대해 지지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준거인들의 경우 창업의 실패나 좌절 보다는 창업의 성공과 성취감과 같은 설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높은 자기효능감이 나타날 수 있다. 주관적 규범의 순응동기에 따르면 준거인의 조언을 얼마나 받아들일 것인지로 설명하기 때문이다(Fishbein & Ajzen, 1975). 또한, Bandura(1977)는 부모의 사회적 지원이 자식에게 있어 의미 있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부모는 격려 및 칭찬 등과 언어적 설득을 사용해 자녀가 높은 효능감을 보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는 것이다. 즉, 부모와 같은 준거인들의 지원 및 지지를 통해 자신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만들고 이로 인해 자기효능감이 형성된다. 대학생의 경우도 국내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자신에 대한 격려 및 칭찬과 같은 인식들이 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을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한주희 외, 2010).

다음으로 타인의 성공 또는 실패 관찰을 통해 자신의 성공에 대한 믿음을 형성하는 대리경험도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전략 중 하나이다(Bandura, 1991). 준거인들의 조언은 그들의 성공 또는 실패에서 노출되는 것을 통해 대리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며(Henry et al., 2005), 위험과 도전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증가시켜 준다(Zhao et al., 2005). 그리고 부모, 친구 및 교사와 같은 준거인들의 행동과 기대 및 과거경험에 대한 해석은 주관적 규범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Dick & Rallis, 1991), 그들의 성공 및 실패 경험은 자기효능감 형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결국 선행연구와 같이 준거인들의 지지와 관심은 곧 창업에 대한 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Boyd & Vozikis(1994)는 자기효능감이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의 핵심 개념으로 제시했다. 그만큼 창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다는 긍정적 태도는 실제 창업 행위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인지정도는 특정 의도를 발달시키고 행동 및 선택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기효능감 역시 어떤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는 신념을 통해 그에 해당하는 기대도 나타나는 것이다.

Bandura(1991)는 이를 효능기대와 결과기대로 구분하였는데, 효능기대가 높은 경우 주어진 환경에서 인내심과 노력 그리고 자기조절과 같은 방식을 통해 극복해 나가려는 신념이 높게 나타난다. 반면 결과기대가 높은 경우에는 긍정적 결과를

미리 예측하기 때문에 결과 달성 과정에 있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Schaubroeck & Merritt, 1997).

창업의 경우 여러 환경적 요소들을 고려해 창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관심과 경험을 증가시키는 선행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창업과 관련된 활동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 실제 실현 가능한지를 인지하게 된다. 결국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이라면 창업에 대한 기대치도 높아지기 때문에 창업 행동 의도적 성향이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된다.

실제 선행연구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증명하고 있다. 창업이 바람직하고 성공가능성이 높으며, 진취적 행동 성향을 보일수록 창업에 대한 의도가 높게 나타났다(Leffel & Darling, 2009), 그리고 대학생들의 창업을 위한 기업가적 의도를 살펴본 연구에서도 개인의 적극적 태도는 기업가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자기효능감이 적극적 태도에 비해 더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자기효능감이 창업 의도에 있어 중요한 변수로 확인됐다(Wu & Wu, 2008). 이렇듯 창업에 대한 행동 의도는 주관적 규범이 직접적 영향을 보일 수도 있으나, 자기효능감이라는 스스로의 믿음과 자신감의 과정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

앞선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주관적 규범은 준거인들의 지원과 관심을 통해 자기효능감을 증가시켰으며, 자기효능감은 창업의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주관적 규범이 창업의도에 영향을 줄 때 자기효능감이 매개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했다.

가설 2: 자기효능감은 주관적 규범이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칠 때 매개 역할을 할 것이다.

2.3 안정지향성의 조절효과

안정지향성은 Schein(1978)의 경력지향성 개념 중의 하나이다. 경력지향성은 자신의 재능, 욕구, 동기, 태도 및 가치관 등이 통합되어 형성된 직업 관련 이미지로, 여러 형태의 삶의 경험과 타인의 피드백 등을 통해 형성된다.

경력지향성은 개인의 경력목표와 적합한 직업이나 조직을 선택하는데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창업과 관련된 연구에서도 경력지향성이 창업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안정지향성은 자신이 현재 속해있는 직장 조직이 안전한 상태이고, 장기적인 시간관점에서 직업적 안정성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현 조직에 남아 있기를 추구하는 경향이다. 단, 한 조직에서 오랜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것이 안정지향성 경력 목표를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 이직을 통해 조직을 옮기더라도 그 이유가 안정된 조직을 찾기 위한 방법이라면 안정지향성 경력 목표라 볼 수 있다(Schein, 1978).

안정지향성 경력 목표를 지닌 사람들은 스스로의 경력관리 체계를 만들고 관리하는 욕구가 있어, 미래에 계획된 일들에 대한 예측과 함께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즐기려고 한다. 더 나아가 조직에 오래 남을 수 있고 현 조직 내에서 퇴직 계획을 꿈꿀 수 있게 복리후생들이 잘 보장되어 있는 대기업과 같은 조직에서 근무하려는 성향을 보인다.

즉, 안정지향성은 자신의 경력을 한 조직 내에 결부시켜 안정을 찾고자 하는 성향이기에 때문에, 다른 경력지향성을 지닌 사람들 보다 조직이 요구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업무 역시 충실하게 수행한다. 심지어는 조직 내에서 자신의 재능을 불인정하고 많은 압박으로 인해 자율성을 침해당한다고 해도 현재의 조직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한다(Kolvereid, 1996). 결국 안정지향성은 조직의 가치 및 규범에 강하게 순응하기 때문에, 많은 위험을 보일 수 있는 창업의 경우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창업 의지 역시 낮게 나타나게 된다(윤방섭,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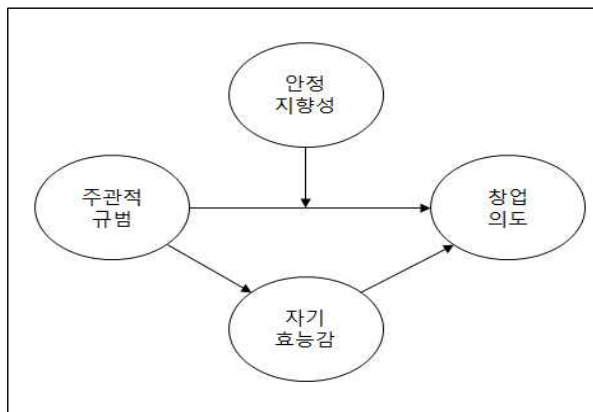
이러한 선행연구의 내용들과 앞서 제시한 가설 1의 관계를 종합해 다음과 같은 새로운 가설을 제시했다.

가설 3: 안정지향성은 주관적 규범이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칠 때 부(-)의 조절 역할을 할 것이다.

III. 연구 방법

3.1 연구의 모형

앞에서 검토한 선행연구들의 이론적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주관적 규범이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및 안정지향성의 조절효과를 함께 연구해 연구모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그림 1> 연구 모형

각각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그림 1>의 연구모형을 기반으로 변수를 측정했으며, 측정된 자료를 이용해 실증분석을 진행했다.

3.2 변수의 조작적 정의

연구모형에서 사용된 변수 측정은 선행 이론에서 사용된 설문 문항들을 사용했다. 변수의 설문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5-point Likert scale)를 이용했으며, 통제변수로 사용된 인적사항과 관련된 부분은 응답자가 편하게 작성할 수 있게 구성했다.

주관적 규범은 ‘준거인들의 창업에 대한 의견을 지각하고 수용하는 동기’를 의미한다. 측정문항은 Kolvereid & Isaksen(2006)이 개발한 창업에 대한 주관적 규범 문항을 수정하여 총 4문항을 사용하였다. 측정 문항을 살펴보면 ‘창업에 대한 가족의 기대는 나에게 중요하다.’, ‘창업에 대한 가까운 친구들의 기대는 나에게 중요하다.’, ‘창업에 대한 대학 동기들의 기대는 나에게 중요하다.’, ‘창업에 대한 가까운 사람들의 기대는 나에게 중요하다.’ 등으로 구성했다.

자기효능감은 ‘원하는 결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신념과 기대,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며, Jones(1986)가 개발한 설문을 사용했다. 문항의 예시로는 ‘내게 주어진 업무는 모두 내 능력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나는 내가 맡은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지금 하는 일보다 더 도전적인 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등 총 7문항으로 구성했다.

안정지향성은 ‘안정적인 현 조직에 남아있으려는 경력목표’를 의미하며, Schein(1978)이 개발한 경력지향성 설문 중 안정지향성 설문 내용 3문항을 사용했다. 측정 문항을 살펴보면 ‘안정된 고용과 봉급, 좋은 퇴직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장기고용을 보장해주는 조직에서 일하고 싶다.’ 등이 구성했다.

창업의도는 Linan & Chen(2009)가 개발한 척도를 수정하여 총 6문항을 사용했다. 문항의 예시로는 ‘나는 기업가가 되기 위해 어떤 일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장래에 창업을 하려고 결심했다.’, ‘나는 직접 창업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등으로 구성했다.

마지막으로 통제 변수로는 설문자의 성별, 연령, 학년, 전공 그리고 창업에 대한 경험 유무를 사용했다.

IV. 실증 분석 결과

3.1 표본의 특성과 기초통계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해 창업에 대해 관심이 높은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생들을 선정하였다. 응답자들에게는 설문의 목적과 설문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진행하고 설문을 실시했으며, 설문 응답 후 익명성 보장을 위해 반송봉투에 담아 설문지를 회수했다. 총 213명이 설문에 응하였으며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 12개를 제외한 총 201(94.4%)부를 통계에 사용했다.

설문 응답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성은 55.7% (n=112) 여성은 44.3% (n=89)이고, 연령은 20세부터 30살까지 (M=23.71, SD=1.67)의 분포를 보였다. 학년은 1학년 1.0% (n=2), 2학년 25.9% (n=52), 3학년 43.8% (n=88), 4학년 27.9% (n=56), 졸업생 1.5% (n=3)로 나타났다. 창업 경험에 대한 응답에는 6.5% (n=13)가 창업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해 아직 많은 학생들이 창업에 대한 경험 정도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4.2 타당성 · 신뢰성 · 상관관계 분석

다음으로 본 연구의 통계를 위해 SPSS 21.0을 사용하여 분석했다. 첫 단계로 타당성 검증을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했는데, 요인 수를 결정하는 방법은 고유 값 1 이상을 근거로 Varimax 회전 방식을 사용했다.

<표 1>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변수	요인 적재량				신뢰도
창업의도 4	.891				.960
창업의도 5	.887				
창업의도 3	.880				
창업의도 2	.872				
창업의도 1	.808				
창업의도 6	.798				
자기효능감 5		.790			.862
자기효능감 7		.740			
자기효능감 3		.735			
자기효능감 6		.701			
자기효능감 2		.682			
자기효능감 1		.678			
자기효능감 4		.637			
주관적규범 8			.891		.945
주관적규범 6			.885		
주관적규범 4			.876		
주관적규범 2			.852		
안정지향성 2				.895	.846
안정지향성 3				.869	
안정지향성 1				.815	
고유값	8.272	2.726	2.273	1.632	
분산비율	41.360	13.629	11.365	8.161	

요인을 추출 결과 문항의 제거 없이 모든 문항이 0.5 이상의 적재량을 보이는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두 번째 단계로 측정변수들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구했다. Cronbach's α 값은 설문 문항의 내적 일관성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그 결과 모든 설문 문항 구성요소의 Cronbach's α 값이 0.8 이상으로 제시되어 측정도구의 신뢰성도 검증되었다.

한편, 본 연구의 가설에 이용된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했고,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했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독립변수인 주관적 규범과 조절변수인 안정지향성과의 관계를 제외하고 모든 변수들의 상관관계는 유의하게 나타났다($p < .01$). 특히 주관적 규범은 창업의도에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r = .555, p < .01$), 매개변수인 자기효능감 역시 주관적 규범과 정(+)의 상관관계($r = .290, p < .01$), 창업의도와도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r = .456, p < .01$), 가설의 내용을 뒷받침해 주었다. 하지만 안정지향성의 경우 종속변수인 창업의도에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 = -.271, p < .01$).

<표 2> 상관관계 분석결과

구분	1	2	3	4
1. 주관적 규범	1			
2. 자기 효능감	.290**	1		
3. 안정 지향성	-.100	-.184**	1	
4. 창업 의도	.555**	.456**	-.271**	1

* 주: ** $P < .01$ 수준에서 유의함.

4.3 가설검증 결과

주관적 규범이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칠 때, 자기 효능감의 매개효과와 안정 지향성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했다. 다중회귀분석 시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통계 변수(성별, 나이, 학년, 전공, 창업경험 유무)를 통제변수로 포함시켰다.

다중회귀분석의 검증결과는 <표 3>, <표 4>와 같다. 우선 모형 1은 가설 1인 주관적 규범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내용으로, 분석모형의 F 값은 18.053 ($p < .001$)로 회귀식이 종속변수를 설명하는데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살펴보면 독립변수인 주관적 규범은 종속변수인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설 1은 지지되었다($\beta = .530, p < .001$).

본 연구의 가설 2는 주관적 규범과 창업의도의 관계에서 자기 효능감의 매개효과에 관한 내용이다. 자기 효능감의 매개효과 분석을 위해, 2단계로 구성된 매개 회귀분석 기법을 이용하였다(Zhao et al., 2010). 1단계의 경우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간의 관계가 유의한지 검증하고, 2단계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동시에 투입해 종속변수에 대해 유의한 관계가 성립하는지 분석하는 방법이다.

1단계의 경우 앞서 제시한 가설 1의 채택을 통해 독립변수와 매개변수와의 관계가 유의한지 증명했다($\beta = .530, p < .001$). 그래서 다음으로 2단계를 분석하기 위해 모형 2에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동시에 투입해 종속변수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주관적 규범은 창업의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beta = .455, p < .001$), 이와 더

불어 매개변수인 자기 효능감도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288, p<.001$).

이와 같이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투입되었을 때, 동시에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경우 부분매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결국, 주관적 규범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 효능감은 부분 매개효과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가설 2도 채택되었다.

<표 3> 매개효과 분석결과

종속변수		창업의도(β)	
구분		모형 1	모형 2
통제변수	성별	-0.104	-.079
	나이	-0.066	-.076
	학년	-0.042	-.033
	전공	-0.030	-.033
	창업경험	0.200**	.142*
독립변수	주관적 규범	0.530***	.455***
매개변수	자기 효능감		.288***
F-value		18.053***	20.780***
R ²		.358	.409
R ² change			.071***

* 주: * $P<.05$, ** $P<.01$ *** $P<.001$ 수준에서 유의함.

<표 4> 조절효과 분석결과

종속변수		창업의도(β)	
구분		모형 3	모형 4
통제변수	성별	-.082	-.060
	나이	-.074	-.058
	학년	-.080	-.101
	전공	-.024	-.014
	창업경험	.171**	.210**
독립변수	주관적 규범	.513***	1.306***
조절변수	안정 지향성	-.209***	.060
상호작용	주관적규범 X 안정지향성		-.828**
F-value		18.259***	17.395***
R ²		.398	.420
R ² change			.022*

* 주: * $P<.05$, ** $P<.01$ *** $P<.001$ 수준에서 유의함.

다음으로 가설 3인 주관적 규범과 창업의도의 관계에서 안정 지향성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모형 3과 모형 4를 제시했다. 조절효과는 Baron & Kenny(1986)가 제시한 단계를

활용하였으며, 종속변수에 대해서 독립, 조절, 상호작용항을 단계적으로 투입해 분석했다. 모형 3에서는 창업의도에 대해 안정 지향성을 투입한 결과 유의미한 부(-)의 관계가 나타났다($\beta=-.209, p<.001$). 그리고 모형 4에서는 주관적 규범과 안정 지향성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했다.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결과 창업의도에 유의미한 부(-)의 결과를 보였으며($\beta=-.828, p<.001$), R2 변화량 역시 .022($p<.01$)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주관적 규범이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안정 지향성이 약화해주는 조절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 가설 3은 채택되었다.

마지막으로 주관적 규범과 창업의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이 매개효과를 보이면서, 안정 지향성이 조절효과를 나타내는 지에 대한 검증으로 부트스트래핑을 사용했다(Preacher & Hayes, 2008).

부트스트래핑 분석을 위해서 표본을 20,000개로 추출하였으며, 안정 지향성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 Low는 -1 표준편차 미만이며, Med는 -1과 1 사이의 표준편차, High는 +1 표준편차 초과에 해당하는 표본을 의미한다. 이에 각각 95% 신뢰구간에서 구한 조절효과 계수의 하한 및 상한 값을 검증에 활용해 <표 5>에 제시했다.

검증결과 Low 안정 지향성의 경우 조절효과 계수의 하한 값이 .414 상한 값이 .574로 0의 값을 포함하지 않는 유의한 영향을 보였다. Med 안정 지향성 역시 조절효과 계수의 하한 값이 .314 상한 값이 .520으로 0의 값을 포함하지 않는 유의한 영향을 보였으며, High 안정 지향성도 조절효과 계수의 하한 값이 .058 상한 값이 .397로 0의 값을 포함하지 않는 유의한 영향을 보였다.

이와 같이 조절효과의 값이 낮아지는 것은 안정지향성이 평균보다 높은 수준일수록 조절효과가 약화된다는 것으로, 주관적 규범과 창업의지와와의 관계에서 안정 지향성은 창업의지를 낮춘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5> 부트스트래핑 조절효과 결과

조절 변수	조절계수	S.E	LLCI	ULCI
Low 안정지향성	.544	.066	.414	.674
Med 안정지향성	.418	.052	.314	.520
High 안정지향성	.228	.086	.058	.397

* 주: LLCI 95% 신뢰구간 하한선, ULCI 95% 신뢰구간 상한선.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다양한 진로 선택에 있어 어떠한 요인이 창업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했다. 즉,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특성과 창업의도와의 영향관계 및 인과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창업 선택 시 관심을 가져야 할 요인들로서, 기존 연구들을 통해 증명했던 주관적 규범 이외에 자기효능감 및 안정지향성이라는 특성을 고려했다.

연구 모형에 맞게 주관적 규범이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칠 때, 자기 효능감의 매개효과 및 안정 지향성의 조절효과에 대해 실증분석을 진행했으며, 연구에 대한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 내용과 같다.

첫째, 창업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창업의도에 정(+)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결과는 선행 연구 결과와 동일한 결과이나(Tucker & Selcuk, 2009; 정대용 외, 2018), 국내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Triandis & Suh(2002)는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집단주의 문화 국가인 경우 주관적 규범이, 개인주의 문화 국가에서는 창업에 대한 태도가 더 큰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대학생들 역시 수평적 집단주의가 강하기 때문에(고관우·남진열, 2018), 주관적 규범이 창업의도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특히 대학생들이 창업을 고려하는데 있어 준거인들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과 다양한 의견을 교류하는 방법들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대학 내 창업동아리와 같은 관련 집단을 만들거나 SNS 모임 등을 형성해 창업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채널을 도입한다면 대학생들의 실질적인 창업에 대한 의도는 더 높아질 것이다.

둘째, 자기 효능감은 창업에 대한 주관적 규범과 창업의도의 관계를 매개한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각 관계가 따로 연구가 진행됐을 뿐 통합된 모형의 연구가 아직 없었다. 하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둘 사이의 관계를 자기 효능감이 매개해 준 것이 밝혀져 이론적으로 주는 시사점이 크다.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준거인들의 관심과 배려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 반응 형성에 도움이 되고 이를 통해 창업에 대한 태도 역시 긍정적으로 상승시킨다. 즉, 준거인들이 창업의 실패나 좌절을 인식시키는 것 보다 기대감을 높여준다면, 대학생들은 업무에 대한 능력의 자신감과 도전의식을 보이기 때문에 창업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게 된다. 이를 반영해 창업 교육 프로그램에서도 실패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창업 성공 사례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면 실제 창업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셋째, 안정 지향성은 주관적 규범이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칠 때 부(-)의 조절 역할을 보였다. 안정 지향성은 현재 속한 또는 속하고 싶은 조직의 보상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장기고용 보장을 선호한다(Kolvereid, 1996). 그렇기 때문에 도전적이고 위험성이 강한 창업에 대한 의도를 낮추게 된다.

실제 대학생들은 취업이 어려워 다른 대안으로 창업을 생각해 창업 교육을 듣거나 창업공모에 응모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미래의 진로를 고민하는 대학생들은 경력지향성의 유형을 고려해 창업이 취업의 대안이 아닌 자신에게 맞는 경력을 찾을 필요가 있다. 유연호·양동우(2008)는 경력지향성의 유형에 따라 선별된 대학생들이 집중적인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 동기부여 및 창업의지를 높여야 하고 이들이 성공적인 창업을 한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이외에도 다양한 경력지향성과 창업의도와의 관련 연구들이 있었는데

(김은경·김종근, 2015; 강경란·박철우, 2017), 본 연구는 선행 연구의 결과에서 안정지향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자료를 축적했다는데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실무적으로도 안정지향성 대학생들의 경우 창업의도가 낮아질 수 있어, 예비 창업자들과 잠재적 창업자들을 양성하는 의사결정 과정에 해당 결과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론적, 실무적으로 중요한 결과를 도출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연구의 대상을 창업에 대해 관심이 많은 서울에 소재한 대학의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는데, 연구의 일반화를 위해서는 전국 규모로 확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론에서 밝힌바와 같이, 창업은 개인의 기본적인 창업에 대한 의지와 지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창업 관심 있는지의 여부를 먼저 물어보고 관심 대상자들에게 설문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이 방법은 창업의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정확한 연구를 위해서는 지역 및 창업 관심 정도와 상관없이 일반화 된 대상을 선정해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둘째, 경력지향성 중 안정지향성의 부정적 효과를 조사하기 위해 안정지향성만을 조사했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경력지향성 5개 변수를 모두 조사해 실제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하게 분석하는 것이 더 발전된 연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FERENCE

- 강경란·박철우(2017). 경력지향성이 창·재취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사회적자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2(5), 177-189.
- 고관우·남진열(2018). 대학생세대와 부모세대의 문화성향이 복지의식과 국가의 복지책임인식에 미치는 영향. *비판사회정책* (58), 123-158.
- 김민정·김봉환(2007). 불안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0(1), 13-25.
- 김은경·김종근(2015). 경력지향성과 노후준비도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0(6), 27-36.
- 성창수·김진수(2011). 시니어창업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 33(3), 109-133.
- 손영근·이병관(2010). 유아의 구강건강 실천행동 의도의 사회인지적 예측변인에 대한 탐구. *한국광고홍보학회*, 12(1), 84-120.
- 유연호·양동우(2008). 창업의지의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경력지향성과 사회 문화적 요인 그리고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대한경영학회지*, 21(5), 2347-2368.
- 윤방섭(2004). 창업과 임금근로의 경력선택·근로가치와 경력지향성의 영향. *중소기업연구*, 26(4), 141-166.
- 윤지영·이은정(2013). 대학생의 진로장벽에 대한 인지와 기업가 성향이 창업의지와 창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전문 경영인 양성을 위한 시사점 도출. *전문경영인연구*, 16(4), 61-81.
- 정대용·김영수·김지혜(2018). 주관적 규범이 창업태도와 지각된 행동통제를 매개로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EIM 을 중심으로. *경영교육연구*, 33(1), 1-22.
- 한주희·박혜원·강은주(2010). 팀 내에서 네트워크 중심성이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경영교육연구*, 62(1),

- 47-71.
- Ajzen, I.(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179-211.
- Baron, R. M., & Kenny, D. A.(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
- Bandura, A.(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
- Bandura, A.(1991). Social Cognitive Theory of Self Regulation.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248-287.
- Boyd, N. G., & Vozikis, G. S.(1994). The Influence of Self-Efficacy on the Development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and Action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8(4), 63-77.
- Chung, D. Y., Kim, Y. S., & Kim, J. H.(2018). The Effect of Subjective Norm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Mediated by Personal Attitude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Focusing on Linan and Chen(2009)' EIM. *Journal of Business Education*, 33(1), 1-22.
- Dick, T. P., & Rallis, S. F.(1991). Factors and Influences on High School Students' Career Choices. *Journal for Research in Mathematics Education*, 22(4), 281-292.
- Fishbein, M.(1963). An Investigation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Beliefs About an Object and the Attitude Toward that Object. *Human Relations*, 16(3), 233-239.
- Fishbein, M., & Ajzen, I.(1975). *Belief, Attitude,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Reading, Mass.: Addison Wesley.
- Fitzsimmons, P. A., Landers, D. M., Thomas, J. R., & Van Der Mars, H.(1991). Does Self-Efficacy Predict Performance in Experienced Weightlifters?. *Research Quarterly for Exercise and Sport*, 62(4), 424-431.
- Han, J. H., Park, H. W., & Kang, E. J.(2010). Network Centrality, Social Support and Self-Efficacy in Team-based Activities. *Journal of Business Education*, 62(1), 47-71.
- Henry, C., Hill, F., & Leitch, C.(2005).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Training: can Entrepreneurship be Taught?. *Education+Training*, 47(2), 98-111.
- Jones, G. R.(1986). Socialization Tactics, Self-Efficacy and Newcomers' Adjustments to Organization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29(2), 262-279.
- Kang, G. L. & Park, C. W.(2017). The Effects of Career Orientation on the Entrepreneurial Reemployment Intention: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s of the Social Capital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2(5), 177-189.
- Kim, E. G., & Kim, J. G.(2015). The Effects of Individual Career Orientation and Preparation of Old Age o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Focused on the Effects of Moderating Role of Social Network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0(6), 27-36.
- Kim, M. J., & Kim, B. W.(2007). The Effect of Anxiety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Career Decision Level.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0(1), 13-25.
- Ko, K. W. & Nam, C. Y.(2018). The Effect of Cultural Disposition of College Students and Their Parents on Welfare Consciousness and National Welfare Responsibilities. *Critical Social Policy*, (58), 123-158.
- Kolvreid, L.(1996). Organizational Employment versus Self-Employment: Reasons for Career Choice Intention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20(3), 23-31.
- Kolvreid, L., & Isaksen, E.(2006). New Business Start-up and Subsequent entry into Self-Employment.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1(6), 866-885.
- Leffel, A., & Darling, J.(2009). Entrepreneurial versus Organizational Employment Preferences: A Comparative Study of European and American Respondents. *Journal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12(1), 71-91.
- Linan, F. & Chen, Y.(2009). Cross-Cultural Application of a Specific Instrument to Measure Entrepreneurial Intention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3(3), 593-617.
- Manyika, J., Lund, S., Chui, M., Bughin, J., Woetzel, J., Batra, P., & Sanghvi, S.(2017). *Jobs Lost, Jobs Gained: Workforce Transitions in a Time of Automation*. McKinsey Global Institute.
- Peterman, N. E., & Kennedy, J.(2003). Enterprise Education: Influencing Students' Perceptions of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28(2), 129-144.
- Preacher, K. J., & Hayes, A. F.(2008). Asymptotic and Resampling Strategies for Assessing and Comparing Indirect Effects in Multiple Mediator Models. *Behavior Research Methods*, 40(3), 879-891.
- Segal, G., Borgia, D., & Schoenfeld, J.(2005). The Motivation to Become an Entrepreneur.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ial Behavior & Research*, 11(1), 42-57.
- Schaubroeck, J., & Merritt, D. E.(1997). Divergent Effects of Job Control on Coping with Work Stressors: The key Role of Self-Efficacy.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0(3), 738-754.
- Schein, E. H.(1978). *Career Dynamics: Matching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 Needs*. Addison Wesley Publishing Company.
- Schunk, D. H.(1982). Effects of Effort Attributional Feedback on Children's Perceived Self-Efficacy and Achieve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4(4), 548.
- Shapero, A., & Sokol, L.(1982). The Social Dimensions of Entrepreneurship. *Encyclopedia of Entrepreneurship*, 72-90.
- Sohn, Y. K., & Lee, B. K.(2010). Predicting Behavioral Intention to Preventive Oral Health among Kindergarten Children: A Comparison of the Health Belief Model and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The Korean Journal of Advertising and Public Relations*. 12(1), 84-120.
- Speier, C., & Frese, M.(1997). Generalized Self-Efficacy as a Mediator and Moderator Between Control and Complexity at Work and Personal Initiative: A

- Longitudinal Field Study in East Germany. *Human Performance*, 10(2), 171-192.
- Stajkovic, A. D., & Luthans, F.(1998). Self-Efficacy and Work-Related Performance: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24(2), 240.
- Sung, C. S., & Kim, J. S.(2011). A Study on the Effects of Senior Entrepreneurs Characteristics on the Entrepreneurship. *Journal od Small Business Studies*, 33(3), 109-133.
- Triandis, H. C., & Suh, E. M.(2002). Cultural Influences on Personality.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3(1), 133-160.
- Trost, M. R., Cialdini, R. B., & Maass, A.(1989). Effects of an International Conflict Simulation on Perceptions of the Soviet Union: A FIREBREAKS Backfire. *Journal of Social Issues*, 45(2), 139-158.
- Tucker, D., & Selcuk, S. S.(2009). Which Factors Affect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European Industrial Training*, 33(2), 142-159.
- Wu, S., & Wu, L.(2008). The Impact of Higher Education on Entrepreneurial Intentions of University Students in China. *Journal of Small Business and Enterprise Development*, 15(4), 752-774.
- Yu, Y. H., & Yang, D. W.(2008). An Empirical Study of Factors Affecting Entrepreneurial Intention -Focused on Career Orientation, Social & Cultural Perception, and Entrepreneurial Support Programs. *Korea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21(5), 2347-2368.
- Yun, B. S(2004). The Effects of Work Values and Career Orientations = Career Choice for Entrepreneurship and Organizational Employment. *Journal od Small Business Studies*, 26(4), 141-166.
- Yun, J. Y., & Lee, E. J(2013). A Study on the Effect of Perceptions of Career Barriers and Entrepreneurship on Intention and Preparation Behavior for Venture Business: Implications for training potential CEO. *The journal of professional management*, 16(4), 61-81.
- Zhao, X., Lynch, J. G., & Chen, Q.(2010). Reconsidering Baron and Kenny: Myths and Truths about Mediation analysi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37(2), 197-206.
- Zhao, H., Seibert, S. E., & Hills, G. E.(2005). The Mediating Role of Self-efficacy in the Development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0(6), 1265.

The Effects of Subjective Norms on the Start-Up Intention: The Mediation Effect of Self-Efficacy and the Moderate Effect of Security Competence

Kwon, In Su*
Kim, Ki Heung**
Seo, Moon Kyo***

Abstract

Many university students try to start up a lot because of career uncertainty, and this study reflected this environmental situation. The subject of the study is the degree to which subjective norms of university students affect the start-up intention. In addition, we looked at the mediated effects of self-efficiency and the moderated effects of security competence.

To verify the hypothesis of the study, 201 university students in Seoul were asked about the relevant variables. And based on prior theory, hypotheses and questionnaires were made. In addition, the validity, reliability and correlation analysis of each variable were conducte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for hypothesis analysis. As a result, subjective norms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start-up intention. Next, self-efficiency was found to be medi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ubjective norms and start-up intentions. Finally, when subjective norms affect the start-up intention, security competence showed negative moderate effect.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 positive perception of start-up by those around them is needed when it comes to raising the intention of starting a business. This positive perception also affects the confidence and sense of challenge in start-up and affects their start-up intention. However, if career anchor prefer stable employment for the organization, it can be seen that they negatively affect the start-up intention.

KeyWords: subjective norms, start-up intention, self-efficiency, security competence

* Professor,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Sejong University, kwonis@sejong.ac.kr

** Adjunct Professor,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Sejong University, sihrm_kim@naver.com

*** Associate Professor, Woongji Tax & Accounting College, zard@wat.ac.kr